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완수 의지 ‘활활’

제46주년 5·18 전야제·추모식

민주광장서 ‘80년 민주대성회’ 재현
개헌 성사·내란 단죄 등 다짐 이어져
권오을 보훈부 장관 “헌법 개정되길”
우원식 국회의장 “반드시 성사” 강조
영령 기린 민주묘지서도 “과제 달성”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전야제와 추모식에서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17일 오후 5시 18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대에선 추최 추산 8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야제가 시작됐다.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가 주최한 올해 전야제는 5·18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 광주 시민들이 옛 전남도청 일대에 모여 신군부 퇴진 등을 촉구했던 ‘민주대성회’를 마당극 형식으로 재현했다.

오월풍물단의 여는 공연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시민들이 묵념하는 민중의례로 전야제의 막이 올랐다. 이후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어머니들이 헌화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한 과제와 ‘12·3 내란’의 완전 단죄를 위한 과업 등이 참석자 발언·공연·영상 등을 통해 논의됐다.

전야제 사상 최초로 정부 인사 자격으로 참석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헌법 전문에 오월 정신을 명시해야 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며 “여야 합의로 조속히 헌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년 만의 개헌이 무산됐지

만, 우리의 다짐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며 “임기가 다 돼가지만, 개헌 무산에 대한 광주의 실망과 분노를 잊지 않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전야제 시작 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방명록에 “5·18 정신, 헌법에 새기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운기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권력이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방치해 온 구조적 모순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내란이 다시는 불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회대개혁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의 넋을 기리는 행사에서도 오월 정신과 발표 책임자 규명 등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30분 국립5·18민주묘지에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최·주관으로 추모제가 엄수됐다.

희생자들에게 올리는 제례의 초헌은 양재혁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아헌은 신극정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이 맡았으며 분향과 헌작, 축문 낭독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모제 후 열린 추모식은 오월 공법 3단체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묵념, 내빈 소개, 추모사, 유가족 인사말, 추모공연,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기본 좋은 소식을 듣고 오고 싶었지만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영령들 앞에 빈손으로 와 참으로 송구하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강 시장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46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요구하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불명자와 발표명령자를 찾는 일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역설했다.

유가족 대표로 인사말을 낭독한 양재혁 유족회장은 “5·18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오월 정신을 헌법에 담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심과 책임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윤찬용·이연상 기자

“국민의힘, 말 뿐인 참배·정치쇼 그만”

국민추진위, 개헌 무산 규탄 회견

최근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 오월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국민의힘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국민추진위원회 등은 17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묘지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국가 폭력과 헌정 유린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방어벽을 세우는 일”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외면한 것은 민주헌정 수호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과 표결 회피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며 “말 뿐인 참배와 기만적인 정치쇼를 중단하고 법적·제도적 보장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오



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며 “어떤 권력도 불법 계엄과 내란을 꿈꿀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개별 발언에 나선 이운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5·18 묘역 앞에서 고개를 숙이

고 국회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외면한 건 정치적 위선”이라며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새겨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18일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연상 기자

“전 세계 아동·여성 ‘인권 향상’ 계속 노력”

광주인권상 수상자 실비아 아칸



“신군부 광주 진압 우간다 참상과 닮아”
평화 핵심 ‘교육’ 강조...권리 보장 촉구

“이번 수상을 우간다가 넘어 전 세계 아동과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17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2026 광주인권상’ 수상식에서 실비아 아칸(47·여)이 수상 소감을 전했다.

실비아 아칸은 우간다에서 분쟁과 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여성·아동의 권리 보호에 힘써 온 인권활동가로, 심사위원회는 그가 피해자들의 치유와 사회복귀를 도운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수상식에 앞서 열린 수상자 기자회견에서도 실비아 아칸은 “광주인권상을 받아 너무 기쁘

다”며 “전 세계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서 군인들이 총으로 무고한 시민을 제압한 것처럼 우간다에서도 시민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며 “지금 한국에 평화로운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것과 달리 우간다는 총성이 멈춤에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을 받은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새로운 세대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서형우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